

대학평의원회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025.10.13.)

2. 회의일시 : 2025-10-13 월 16:30 ~ 17:30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9명	정태진, 정인호, 김보나, 이갑래, 이재영, 오세준, 조종건, 김훈, 김덕수
불참인원	5명	구자경, 송호준, 신유성, 백운, 김효경

5. 회의안건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_20251013.pdf 별첨

7. 의 견

(동의)김훈 : 수고하세요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5.10.13

의 장	정 태 진	2025/10/24 확인
부 의 장	정 인 호	2025/10/23 확인
위 원	이 갑 래	2025/10/23 확인
위 원	이 재 영	2025/10/22 확인
위 원	오 세 준	2025/10/23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5/10/23 확인
위 원	김 훈	2025/10/22 확인
위 원	김 덕 수	2025/10/22 확인
간 사	김 보 나	2025/10/22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5. 09. 30.(화)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3명

1. 회의일시 : 2025. 10. 13.(월) 16:30

2.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8명)	(의장) 정태진 (부의장) 정인호 (교원) 오세준, 이갑래, 이재영 (직원) 김덕수 (위촉) 김훈, 조종건	간사: 김보나
불참인원 (5명)	(교원) 구자경, 송호준 (직원) 백운 (조교) 김효경 (학생) 신유성	

4. 안건

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나. 기타 안건

5. 회의내용

김보나 간사(이하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정태진 의장(이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이강민 대학원교학팀 팀장이 배석하여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대학원 학과(전공)신설 및 정원조정에 따른 대학원학칙 변경(안) 임을 말하며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환경융합공학학과(환경융합공학) 설치, AI융합대학원 석사과정 환경융합공학학과(환경융합공학) 폐지, 석사과정 AI융합대학원 AI융합학과내 시가상자산전공 신설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어, 202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상호조정, 자체조정) 사항에 대해 각 대학원별 정원 변동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어, 교육부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관련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

적 기준 인원(관련분야 교원의 1/2 이상)을 대학원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을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이재영 의원이 대학원 내부적으로 시가상자산전공 및 향후 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를 거치셨겠지만, 대학원 입학 당시에는 세부 전공을 미리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학과명만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물리적으로 학과로서의 분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융합공학과와 석사과정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석사와 박사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이강민 팀장이 학과 내 세부 전공의 경우 전공 변경이 재학중 가능함을 설명하다. 2026학년도 하반기 이후 교육과정, 입학수요 등 상황을 종합하여 학과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교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하고 그렇게 된다면 신설 학과로 분리운영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어, 환경융합공학과가 작년 하반기에 설치되어 신입생 모집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일반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환경융합공학과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이 2년(4학기), 모집대상이 본교 관련분야 학과의 학생으로 교육과정 부분에서도 일반대학원의 성격인 학문이론과 학술연구와 부합됨을 설명하다. 또한, 일반대학원의 경우 총정원제로 운영되어 이미 여러학과가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보다 유연한 정원조정과 관리가 가능함을 설명하다.

김덕수 의원이 박사과정 신설 조건 완화 시 학과나 수업의 질 저하가 문제되지 않는가 질의하자, 이강민 팀장이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실적 부분에서 충족되는 상황이나, 계열별 학과 특성도 고려하였음을 이야기하고,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는 교원의 연구실적으로만 판단되지는 않을 것임을 설명하다. 이어 타 학교 사례 등도 검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대학의 경우에 맞게 재임용 및 승진 기준도 같이 검토하였음을 부연설명하다.

오세준 의원이 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 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융합공학과 명칭 내 '학(學)'이 중복됨을 지적하다. 이에 이강민 팀장은 연구실적 기간은 설치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7명의 교원 중 4명 이상이 해당 기간 동안 계열별 연구실적 편수를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연구실적에 대한 편수 산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따름을 설명하다.

이후 학과명칭에 대한 별도의 후속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종건 의원이 재질의하며 "명칭 내 중복된 '학(學)' 표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이에 이강민 팀장은 환경융합공학과와 석사과정의 명칭은 발의 학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경하겠다고 답변하다.

이갑래 의원이 시가상자산전공의 설치가 시용학과 내 인지 확인하고, 작년 시용합대학원의 경우 시용합학과와 환경융합공학과가 함께 공존하면서 배합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

며 실제로 학생모집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오세준 의원이 해당 학과에서는 외국인학생을 유치하였으나 우리 대학 내부의 규정과 절차가 맞지 않아 결국 모집하지 못했음을 부연하다.

이에 이강민 팀장이 우리 대학의 외국인입학전형은 국제교류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도 입시전형계획 수립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당학과의 모집에 대해 전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설명하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입학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당시는 하반기에 모집하는 관계로 실제 학생들의 입학시기와 맞물리지 못하면서 모집에도 어려움을 있었음을 설명하며, 향후에는 정기적인 학생모집과 더불어 유학생의 경우에도 우리 대학의 유학생들의 학업적 연속성 등을 갖고 진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하다.

의장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학원 학칙 개정안 중 환경융합공학학과의 명칭을 환경융합공학과로 수정하여 승인(발의학과 확인완료)하자는 의견에 모든 의원이 동의하다.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7시 30분에 폐회하다.

2025년 10월 13일